행정안전부	보도자료	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4. 11. 15.(금) 13:30
(지 면) 2024. 11. 16.(토) 조간

겨울철 대비 응급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화재 대비 현장점검

- 119구급상황관리센터·요양병원 방문,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및 화재 대비·대응상황 점검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11월 15일(금) 대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전남 순천예선요양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체계와 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.

□ 먼저, 대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찾아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활동 등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. 특히, 올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신규 중증도 분류기준(Pre-KTAS*)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다.

*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초기 평가 후, 주 증상에 따라 1~5단계(레벨)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시스템

○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문자격을 갖춘 구급대원(1급 응급구조사, 간호사)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24시간 상주하면서 이송병원 선정, 병·의원 안내 등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

□ 이어, 전남 순천예선요양병원에서는 소방·전기·가스 설비, 대피 경로, 화재 진압 장비 등 겨울철 화재 대비·대응 체계를 점검했다.

○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처가 중요한 만큼, 현장 관계자에게 훈련을 통해 평소 대피절차를 숙지하는 등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.

□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, 응급환자 긴급이송, 대형화재 등 긴급 상황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사회재난실 보건사회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엄현숙 (044-205-6150)
		담당자	사무관	정의철 (044-205-615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